

보도시점 2026. 10. 1.(목) 08:00 배포 2026. 10. 1.(목) 08:00

외국인 관광객, '케이-투어 패스'로 교통·관광지 이용 할인 한 번에

- 10월 1일부터 부산 방문 외국인 관광객 대상 교통·관광 결합 '케이-투어 패스' 시범 운영
- 광역 교통수단 편도 요금 및 주요 관광지 이용료 할인 혜택 제공

문화체육관광부(장관 최휘영, 이하 문체부)는 한국관광공사(사장 박성혁, 이하 관광공사)와 함께 10월 1일(목)부터 외국인 관광객 전용으로 교통수단 결제와 주요 관광지 이용료 할인 혜택을 통합한 '케이-투어(K-Tour) 패스'를 부산 지역에서 시범 운영한다. 이번 시범 운영은 개별 자유여행(FIT)을 선호하는 외국인 관광 경향에 맞춰 지역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 관광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.

1일 '구간권'과 코레일패스(2~5일권) 혜택 연계 '기간권' 운영,
온라인여행사 통해 구매 후 공항·철도역 키오스크에서 실물 카드 발급

올해 처음 시행하는 '케이-투어 패스'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이용권으로서 서울을 제외한 지역 중 외국인 관광객 선호도가 가장 높은 부산*을 대상으로, 부산행 1일 구간권(패스1)과 코레일패스 2일~5일권 혜택을 연계한 기간권(패스2)으로 나누어 운영한다.

* '25년 외래관광객 방문 지역: 서울(76.8%), 부산(15.7%), 경기(11.2%), 제주(9.7%)
순(2025 외래관광객 조사, 문체부)

구간권과 기간권 모두 15,000원에 판매된다. 구간권은 광역 교통수단과 공항철도 직통열차 편도 요금 결제 시 일정 비율을 할인받을 수 있으며, 기간권은 코레일패스(2일~5일권) 구매 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. 부산 주요 유료 관광지 가맹점 35곳 중 1곳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등 다양한 관광지 이용 혜택도 포함되어 있으며, 체험·관광·카페 등 50개 제휴 가맹점에서도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.

‘케이-투어 패스’는 온라인여행사(OTA)인 ‘클룩’, ‘웹투어(홉앤홉)’ 모바일 응용프로그램(앱)·웹을 통해 구매할 수 있으며, 구매 후 부산행 광역 교통수단을 예약할 때 40%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다. 부산 주요 관광지 무료 입장과 할인 혜택은 구매 시 함께 발급되는 입장 바코드를 제시하면 받을 수 있다. 지하철· 시내버스 등의 대중교통 결제를 할 수 있고, 원화를 충전하여 체크카드로도 사용할 수 있는 실물 카드를 제공하는데, 외국인 관광객이 수령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. 실물 카드는 인천·김포·김해국제공항과 서울·부산역에 설치된 키오스크에서 무료로 발급받아 현금 원화 또는 해외 신용카드로 충전할 수 있다. 온라인에서는 모바일 응용프로그램(앱)·웹을 통해 해외 신용카드로만 충전할 수 있다.

’27년 지방공항 중심 5대 관광권과 연계 교통·관광지 이용 혜택 확대

문체부 강정원 관광정책실장은 “‘케이-투어 패스’ 시범 운영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들이 교통 결제와 관광지 이용을 부담 없이 편리하게 즐길 수 있기를 기대”한다며 “문체부는 시범 운영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, ’27년 예산안에는 올해 대비 약 3배 증액한 90억 원을 편성, 지방공항 중심 5대 관광권과 연계해 교통·관광지 이용 혜택을 확대하고 지역으로의 방문을 유도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붙임 ‘케이-투어(K-Tour) 패스’ 홍보 이미지

담당 부서	관광정책실 국제관광서비스과	책임자	과장	심민석 (044-203-2891)
		담당자	사무관	최원영 (044-203-2898)





All in One with Tour Pass! K-Tour Pass

See Details on Product Page

KTX/Express Bus 40% OFF

AREX 50% OFF

Free Busan Attractions

WOWPASS Included

